

《자유연제 II 08:40~09:30》

점액낭형과 관절 내형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술 후 임상 결과 비교

박진영* · 임종범 · 김명호

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*

서론

본 연구의 목적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점액낭 형과 관절 내형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술 후 견관절 기능의 임상적 평가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.

연구대상 및 방법

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본원에서 수술을 시행하고 2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5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모든 예에서 견관절 기능을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, 2년 추시에서 미국 견주관절학회의 견관절 기능평가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.

결과

술 후 견관절 기능 평가상 술 전 환자들의 전체적인 평균 통증 정도는 6.9 점이었으나 술 후 1년과 2년째 각각, 1.4, 0.5로 감소하였고, 평가법에 의한 점수는 44 에서 81, 94 점으로 증가하였다. 세부 분류상으로는, 점액낭형에서 술 전과 술 후 1년, 2년째 평균 통증 정도는 각각 7.3, 1.6, 0.3 점수로는 37, 88, 96점을 보였고, 관절 내형에서는 각각 6.7, 2.8, 0.7 과 50, 73, 92점을 보였다. 술 전 충돌 주사 검사(Impingement Injection test)상 결과로는 주사 후 점액낭형에서 80%, 관절 내형에서 67%의 기능 향상을 가져왔다.

결론

술 후 견관절 기능 평가 상 전반 적으로, 술 전에 비해 술 후 1년과 2년 째 평균 통증 정도와 평가법에 의한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으며, 세부분류상 점액낭형에서 술 후 1년째 더 빠르고 보다 더 큰 향상을 보여주었다. 술 전 충돌 주사 검사 상 결과에서도 점액낭 형에서 더 높은 기능향상을 보여주어서, 결론적으로 관절 내형에서 보다 점액낭형에서 술 후 더 빠르게 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좋은 수술 결과를 얻었고, 술 전 주사검사 결과와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.